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함대로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대로 영생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육 간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7년간 온갖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사와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대로 순종해 드리기만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곳곳에 부흥회를 찾아다니며 배우는 대로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즉시 이루지 못하는 것은 노트에 기록해서 이를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만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행통하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한 저는 성도들에게도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성도

들은 물질과 건강의 축복, 직장과 가정의 축복, 그 외에도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믿음을 더 온전케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며 영육 간에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응답하며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등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천국의 소망이 넘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기에 이 땅의 부와 명예, 쾌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좋은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다 해도 지나고 보면 순간의 꿈과 같기 때문입니다. 길어야 백 년도 안 되는 삶 속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 권세를 쌓고 취한다 해도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혹여 '아무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하셔도 이것만은 버리기가 힘들고 괴롭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 젊은데 인생을 즐기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 중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지혜인지 궁구해 보십시오. 이 땅의 삶과 달리 천국은 최고의 행복과 기쁨, 최고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점점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정욕이 얼마나 헛된지 알기 때문에 죄에 속한 것, 애중에 속한 것은 마음에 두기도 싫어집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

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눅 17:21). 또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행통하니 입술에는 찬송과 간증이 끊이지 않고 천국 소망이 넘칩니다.

셋째로,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행한 것은 장차 천국에서 모두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린 간절한 기도, 전도와 심방, 땅 흘러 수고한 섬김과 봉사, 성령이나 성교를 위해 정성껏 심은 예물, 심지어 성령에 떨어진 휴지 하나 주운 행함까지도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반드시 마음의 활력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마음을 활례하는 자체가 상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활례한 정도에 따라 천국의 처소가 달라지며 같은 일을 했다 해도 상급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면서 울린 마음의 향과 그로 인해 맺히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봉사를 하다가 짜증내며 다투었다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마음을 활례하며 상급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달리지시 바랍니다.

그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상에서 세세토록 감사의 찬송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많은 분들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내하며 절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와 동료들이 육적인 쾌락을 좇을 때 교회에 나와서 찬성 봉사하며 기도와 전도, 심방에 시간을 드렸지요. 또한 자기를 위해 물질을 쓰거나 모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더 즐겨했습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참혹한 핍박과 죽음까지도 감사로

Surprise!

하계수련회 때, 성도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아름다운 빛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형상을 찾아 보세요. 아주 신비하고 아름답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4536, 5615 (교회앞 하차)
 - 4503, 53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자녀예배	11:00 PM
금요찬양예배	3:00 PM
수요예배	11: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한·가산·청년·바울·마리아)	7: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8: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9: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4:00 PM
다시 열매지기대회	3:00 PM
새벽예배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원문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상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만민의 젊은이들 '6개 연합 하계수련회' 에서 하나 되다

지난 8월 1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횡성 현대 성우리조트에서 만민의 젊은이들이 한지리에 모인 가운데 2011년 6개 연합 하계수련회가 열렸다. 청년·대학·가나안·바울·마리아·빛과소금성교회 회원들이 성령의 따로 하나 되어 주를 향한 열정을 불태운 은혜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본다.



사진으로 보는 6개 연합수련회 이유저요!



교육과 성령충만 기도회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와 1세대 대대교구장 이미경 목사의 교육을 통한 섬세한 영적 터치와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성령충만기도회에서 나타난 회개의 역사로 만민의 젊은이들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았다.



잠자리 체험, 하늘보기
만민의 수련회 장소에 어둠이 나타나는 신기한 잠자리 때, 6개 연합 젊은이들도 손과 얼굴, 어깨 등에 남아와 앉는 잠자리를 체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늘 보기 행사'에서 은하수와 유성 이동하는 별 등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사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다.



체육대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던 가운데 초가을처럼 시원하고 상쾌한 날씨 속에 6개 연합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선교화별 대항으로 100미터 달리기 릴레이, 오레 달리기 공 넣기, 승부차기와 응원전이 펼쳐졌으며, 우승은 가나안교회였다. 준우승은 대학선교회가 차지했다. 우승팀의 박형배 형제, 윤선미 자매가 MVP로 선정됐으며 응원상은 드럼라인(Drum Line)을 활용한 멋진 응원을 선보인 청년선교회에 돌아갔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August Programs

한여름 열을 냉수와 같은 시원한 프로그램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GCN 방송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MANMIN TV 위성 및 인터넷TV 안내 1577-2073